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 년 8 월 1 일

CUOMO 주지사,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이 법안은 D 급 중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검사를 폭행하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공무 수행 중인 검사를 폭행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구현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 폭행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무를 방해할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 서명으로 이런 극악한 폭행을 처벌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로 보호 받는 공무원 및 기타 개인 리스트에 검사들도 추가됩니다. 모든 뉴욕커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A 급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합법적이고 배정된 직무를 방해할 의도로 공무원이나 기타 개인을 폭행하는 것은 D 급 중범죄로 격상됩니다. 이 격상 조항에 의거 무엇보다도 열차 운전자, 교통 경찰관, 등록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들이 포함됩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이 피보호자 리스트에 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로 폭행하거나 직무 집행 중인 검사에게 부상을 야기하는 것은 D 급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Andrew J. Lanz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는 위험한 범인을 구금시킴으로써 공공에 봉사하는 것인데, 그 일은 특히 검사들이 대중 속에 있을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검사로서 본인은 이 법률이 난폭한 행동을 저지하고 우리 검사들을 폭행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Matthew Titon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Kaufman 카운티 지방검사, 그의 부인 및 지방검사보의 비극적 살해가 상기시켜 주듯이 이 직업의 사람들은 수 많은 위험에 맞섭니다. 검사들은 순전히 자신의 직무 성격으로 인해 본인의 안전을

위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은 검사 폭행의 형법적 의미를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구조사 폭행과 동급으로 만들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